

2천 년 전 붓, 다시 살아난 글자

이상미, 104호 부여삼한실 18:00~18:30

붓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문방용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붓은 창원 다호리 1호 무덤의 목관 아래 대바구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 바구니 안에 청동검, 청동거울과 같은 귀한 물건들과 함께 붓 5개와 손칼이 들어있었습니다.

다호리의 붓은 붓털이 양쪽 끝에 두 개씩 달려있고, 자루에는 3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독특한 모양입니다. 끝에 있는 구멍은 안쪽으로 ‘T’ 자 모양으로 뚫려 있어 실로 묶은 붓털을 안으로 당겨서 고정하는 용도이고, 가운데는 붓을 매달 수 있는 끈을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종이가 흔하지 않아서 나무에 글을 써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목간木簡 또는 죽간竹簡이라고 합니다. 목간에 쓴 글씨를 지울 때는 손칼로 나무를 깎아 오늘날의 지우개처럼 사용했습니다. 중국 고대의 자료를 참고해 볼 때, 붓과 손칼은 나무판에 글을 쓰고 지우는 문방용구로 추정됩니다. 문자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이 붓과 손칼을 사용했던 2천 년 전의 변한 사람들은 이미 글자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구니 안에서 천칭天秤 저울추로 추정되는 4개의 고리가 함께 나왔는데, 각각의 무게가 5g, 10g, 11g, 22g의 배수로 확인되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기록하는 문방용구와 상업에 이용되는 도량형은 지배층의 무덤에 매장할 만큼 당시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림 1 변한·낙랑의 문방용구



그림 2 창원 다호리유적 출토 붓

특별전<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8)

- 조선왕조의궤의 체재와 내용 구성 -

임혜경,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국가 의례나 행사가 끝나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의궤儀軌를 제작하였습니다. 의궤 제작만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의궤도감儀軌都監을 설치하기도 하고, 규장각奎章閣 등 기존의 상설 조직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의궤는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나, 국왕의 명령을 적은 문서, 다른 관청과 주고받은 문서 등을 모아 일정한 체재를 갖추어 정리한 후 그대로 베껴서 만듭니다. 대체로 담당자 명단인 ‘좌목座目’, 왕의 명령을 적은 ‘전교傳敎’, 국왕과 신하들이 주고받은 말을 적은 ‘연설筵說’, 행사를 주관한 관청이 다른 관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모은 ‘이문移文’, ‘내관來觀’, ‘감결甘結’, 구체적인 의례 절차를 적은 ‘의주儀註’가 중심이 되고, 행사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직의 문서나 물품 목록 등을 따로 정리하여 넣기도 합니다.

전시실에서 직접 펼쳐볼 수 있는 『기사진표리진찬의궤』(1809년)에는 진찬進饌(왕실 잔치) 때 불렀던 악장樂章의 가사와 잔치의 주인공인 혜경궁惠慶宮 홍씨에게 올린 축하의 글, 잔칫상에 올린 음식의 종류, 잔치에 초대된 손님 명단 등 진찬의례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사진표리진찬의궤』의 구성

	항목	내용		항목	내용
1	목록目錄	항목별 분류 목록	9	계사啓辭	주관 관청에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
2	택일擇日	행사 개최 날짜	10	이문移文	주관 관청에서 다른 관청에 보낸 문서
3	좌목座目	담당 관리들의 명단	11	내관來關	다른 관청에서 주관 관청에 보낸 문서
4	도식圖式	행사 장면 및 물품 그림	12	감결甘結	주관 관청이 하급 부서에 지시한 문서
5	전교傳敎	행사 관련 국왕의 명령	13	찬품饌品 기용器用 배설排設 의장儀仗	행사 때 사용한 음식·물품 목록
6	연설筵說	국왕과 신하들의 논의 내용			
7	악장樂章 치사致詞 전문箋文	노래가사, 축하글 등 행사 관련 각종 글	14	참반參班 의위儀衛 공령工伶	행사 참여자 명단
8	의주儀註	행사 준비 및 의식 절차	15	상전賞典	행사 종료 후의 시상 내역

제70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2월 21일)

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백승미, 상설전시실 으뜸홀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입니다.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장애인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박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22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 관람객이 더욱 편리하고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키오스크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여 드리고자 합니다.

1,2,3 각 층에 마련된 키오스크에는 음성 인식·합성, 수어 동작 인식, 수어 아바타 구현, 점자 입/출력장치, 자동 높낮이 조절 기능 등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각 장애 관람객이 수어로 질문하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수어 아바타 안내와 관련 답변을 제공하는 양방향 안내 서비스도 최초로 시작합니다. 단순한 시설, 이용 안내 뿐 아니라 추천 동선, 전시품 수어 설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편리하게 박물관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키오스크 서비스는 휴대폰 서비스로도 연동되어 이용 가능합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 수어 챗봇 아바타가 설명을 돕기도 하고, 추천 동선 안내로 전시 관람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는 이제 첫발을 내딛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멀지만, 꾸준히 기능을 더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의 장벽을 깨뜨리고, 누구나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열린 박물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1. 키오스크 화면과 수어 안내 아바타

제70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2월 21일)

새롭게 단장한 기증 I 실 둘러보기

이원진, 209호 기증 I 실 19:00~19:30

지난 12월 16일(금)에 문을 연 ‘기증 I 실’은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이뤄지는 기증관 개편 사업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결과물입니다. ‘기증 I 실’은 기증에 대한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길잡이 역할의 공간으로, 모든 세대와 계층이 매력을 느끼며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맞추어 정한 ‘기증 I 실’의 부제는 ‘**나눔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나눔은 기증자의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이 기증관이라는 공간에서 기증자와 기증품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나누는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나눔’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기증관은 전시, 아카이브, 미디어, 휴식 기능이 모두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람객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나눔의 서재**’는 다양한 기증품을 감상하는 라운지와 기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아카이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사진 1).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상 공간에서는 ‘기억’에 초점을 맞춰 풀어낸 영상 ‘**기증, 기억을 나누다**’를 감상하며, 실감형 영상으로 구성된 ‘**나눔의 길**’을 거닐면서 역대 수많은 기증자의 이름과 어록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기정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 전시 공간에서는 1994년 손기정 선생이 기증한 청동 투구를 집중 조명하여 투구에 담긴 기억과 나눔의 가치를 살펴봅니다(사진 2). 특히, 투구에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내년 기증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를 미리 살펴보는 맛보기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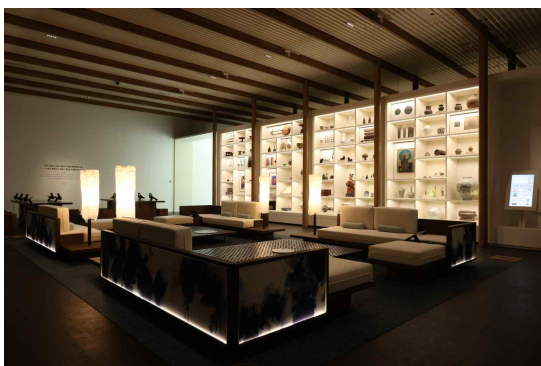


그림1. ‘나눔의 서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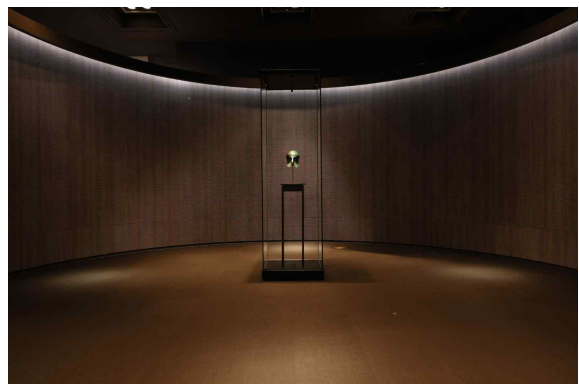


그림2. ‘손기정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 전시 사진